

『中國正史 譯註 1』(국사편찬위원회, 2007) 의
『後漢書』 중 「東夷列傳」

□「序」

- ‘夷’의 정의: ‘東方’을 ‘夷’라고 함. 夷는 ‘根本’임
 - 九夷: 공자도 九夷에 살고 싶어함.
- 중원(중국)과 ‘夷’의 관계 변천
 - 夏后氏: 太康이 덕을 잃자 夷인들이 처음으로 叛함
 - 桀의 포악함: 여러 夷들이 내지에 침입. 殷의 湯王이 혁명후 정벌, 평정함
 - 武乙에 이르러 東夷가 강성해져, 淮水와 岱山에 나누어 이주함. 中土에 까지 이주함
 - 周 무왕이 殷의 주(紂)를 멸망시킨후, 管叔과 蔡淑이 주를 배반하고 夷狄을 招誘함. 周公이 이를 정벌하여 東夷가 평정됨.
 - 西夷가 王號를 칭하며, 九夷를 데리고 宗周를 쳐서, 황하 상류까지 진출함. 楚 文王이 大兵을 일으켜 晳國을 멸망시킴.
 - 幽王, 四夷가 번갈아 침범함
 - 秦의 6국 합병후, 淮水와 泗水 지방의 夷를 분산시켜 진의 백성으로 만들
 - 陳涉의 기병으로 진이 붕괴되자, 燕의 衛滿이 조선으로 피난하여 왕이 됨. 100년후 武帝가 멸망시켜, 東夷가 처음으로 上京에 통하게 됨.
 - 王莽의 찬탈후 황제가 되자, 貊人이 변경 침략, 노략질함.
- 建武(서기 25-55년, 고구려 대무신왕 8년- 태조왕 3년)초, 東夷가 다시 조공을 바침
 - 중국 요동태수의 위세가 북방에 미쳐, 이에 濊, 貊, 倭, 韓이 조공을 바침
 - 漢의 중흥이후, 四夷의 빈공이 여기거나 叛이 있었으나, 사자와 통역이 그치지 않아서 四夷의 풍속과 풍토를 기록할 수 있게됨
- 東夷에 대한 기술
 - 東夷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, 술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함. 冠으로는 고깔(弁)을 쓰고 비단옷을 입으며, 그릇은 조두(俎豆)를 사용하였으니, 이른바 중국이 禮를 잃으면 四夷에게서 구함
 - 蠻·夷·戎·狄을 통틀어 四夷라고 부르는 것은, 公·侯·伯·子·男을 모두 諸侯라고 부르는 것과 같음

□「夫餘國」

- 부여의 위치, 건국신화, 관제, 풍속 및 중국과의 관계 기사
 - 부여국: 현토(玄菟)의 북쪽 천리쯤에 위치함. 남쪽은 고구려, 동쪽은 읍루, 서쪽은 鮮卑와 접해 있으며, 북쪽에 弱水가 있음. 국토 면적은 사방 2천리이며, 본래 濊(族)의 땅임.
 - 北夷의 索離國 왕이 출타중에 그의 시녀가 후궁에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며, 東明이라 부름
 - 동명은 활을 잘 쏘아 남쪽으로 도망가서, 부여에 도착하여 왕이 됨
- 부여는 東夷 지역중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이며, 오곡이 잘 자람
 - 사람들이 체격이 크고, 굳세고 용감하여, 근엄, 후덕하여 타국을 침략하거나 노략질하지 않음

- 建武(서기 25-55년)에 동이의 여러 나라들이 朝獻하고 入見함. 건무 25년(서기 49년, 고구려 慕本王 2년)에 부여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침. 광무제가 후하게 보답하여, 이후 사절이 매년 왕래함
- 부여는 본래 현토(玄菟)에 예속되었으나, 獻帝때 부여 왕이 요동에 예속되기를 요청함

□「挹婁」

- 읍루(挹婁)의 위치, 토산물, 풍속 및 제도 서술
 - 읍루: 옛 肅慎 지역의 나라. 부여에서 동북쪽으로 천여리 밖임. 동쪽은 큰 바다에 닿고, 남쪽은 北沃沮와 접함
 - 산이 많고 험준함. 사람들의 생김새가 부여사람들과 흡사하지만 언어는 다름.
 - 五穀과 麻布가 있으며, 담비가 산출됨.
 - 군장이 없으며, 읍락마다 大人이 있음
 - 산림속에 거주하며, 매우 추워서 항상 굴속에 거주함.
 - 매우 용감하고 힘이 세며, 활을 잘 쏘고, 배를 잘 타고 노략질을 좋아함
- 漢代이래로 부여에 신속됨.
 - 東夷나 夫餘는 식사시 거의 모두 조두(俎豆)를 사용하지만, 오직 읍루만은 법도가 없어서, 東夷 중에서 가장 기강이 없음

□「高句麗」

- 고구려의 지리적 위치, 풍속, 관제, 생활습속 및 중국과의 관계 서술
 - 고구려는 遼東의 동쪽 천리 밖에 있음. 남쪽은 朝鮮과 濊貊, 동쪽은 沃沮, 북쪽은 夫餘와 접경함.
 - 넓이는 사방 2천리. 농사를 지어도 자급하기에 부족함.
 - 東夷들이 전하여 오기를, 고구려는 부여의 別種이라 함. 언어와 법칙이 부여와 많이 같음
 - 한 무제는 朝鮮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縣으로 만들어서, 현토(玄菟)에 속하게 함
 - 풍속이 음란하고, 모두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,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를 부름
 - 사람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며, 전투를 잘하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하며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킴

□「句驪」

- 내용상 高句麗傳 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.
- 句驪: 일명 맥(‘貊’)이라 부르며, 별종으로 ‘小水貊’이라 부름. 좋은 활이 생산됨
 - 王莽초에 句驪의 군사들 징벌, 흉노를 정벌케 하였으나, 가지않으려고 해서 강압적으로 보냄. 구려 군사들이 모두 국경 너머로 도망간 뒤 중국 군현을 노략질함. 이에 왕망이 장수 嚴尤를 보내 정벌케 함. 엄우가 句驪候를 국경안으로 유인하여 목을 뱀. 이후 왕망은 고구려왕의 칭호를 ‘下句驪候’라 부름. 이에 貊人들의 변방 노략질이 더욱 심해짐
- 건무 8년(서기 32년, 고구려 대무신왕 15년)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여, 광무제가 왕호를 회복해줌. 건무 23년(서기 47년, 고구려 閔中王 4년) 겨울에 구려의 만여명이 낙랑에 투항함.
- 安帝 永初 5년(서기 111년, 고구려 태조왕 59년)에 浞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현토에 예속되기를 청함
- 建光 원년(서기 121년, 고구려 태조왕 69년)에 유주자사 등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우두머리를 목뱀
 - 고구려의 浞의 아들 遂成이 현토와 요동을 공격하여 성곽을 불태우고 2천명을 살상함. 여름에 요동의 선비족 8천명과 함께 遼隊(縣)을 침공하고 약탈함
 - 浞이 왕이 되고, 후한에서 회유책을 쓰자, 그 다음해 遂成이 漢의 포로를 송환하고 현토에서 항복

함. 이에 후한은 포로를 돌려주면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겠다고 선포함

- 수성이 죽고 아들 伯固가 왕이 된후, 濊貊(고구려)가 복속하니 동쪽 변방에 사건이 줄어들음. 順帝 陽嘉 원년(서기 132년, 고구려 태조왕 80년)에 현토군에 屯田 6부를 설치함
- 建寧 2년(서기 169년, 고구려 新大王 5년)에 현토태수가 고구려를 토벌하여 수백명을 죽임. 伯固가 항복하여 현토에 예속되기를 청함

□「東沃沮」

- 총 370자, 동옥저의 지리적 위치, 제도, 풍속, 漢과의 관계, 토산품을 서술함.
- 동옥저는 고구려 蓋馬大山의 동쪽에 위치함. 동쪽은 큰 바다에 연결하며, 북쪽은 읍루, 부여와, 남쪽은 예맥과 접함.
- 지형이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길러, 면적은 사방 천리의 절반정도.
- 오곡이 잘 자라서 농사짓기에 적합함
- 사람들이 질박하고 정직하고 굳세고 용감하며, 창을 잘 다루며 步戰을 잘 함.
- 언어, 음식, 거처, 의복은 고구려와 비슷함.
-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킨 후 옥저땅으로 현토군을 삼음. 뒤에 夷貊의 침략을 받아 郡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기고, 옥저를 縣으로 거쳐 낙랑(군)의 東部都尉에 속하게 함.
- 옥저: 고구려에 臣屬케됨. 고구려는 그 지역의 大人을 뽑아 사자로 삼아 다스리게함
- 北沃沮: 置溝婁라 불림. 남옥저와 8백여리 떨어져 있으며, 풍속이 남옥저와 같음. 읍루의 남북 경계와 접해 있음
- 挹婁사람들이 배를 타고 노략질하므로, 북옥저는 이를 피해서 여름철에는 바위굴에 숨어 살다가 겨울철에 산에서 내려와 읍락에서 거주함.

□「濊」

- 濊: 북쪽으로 고구려, 옥저와, 남쪽으로 辰韓과 접해 있으며, 동쪽은 大海에 닿으며, 서쪽은 樂浪에 이름. 예, 옥저, 고구려는 본래 모두가 옛 朝鮮의 지역임
- 周 무왕이 箕子를 조선에 봉하니, 기자는 조선 백성에게 예의와 농사짓는 법과 양잠법을 가르쳤으며, 八條의 教를 제정함
- 그뒤 40여세를 지나, 朝鮮候 準에 이르러 스스로 王이라 칭함.
- 漢初 대혼란기에 燕, 齊, 趙나라 사람으로 그 지역에 피난간 사람이 수만명이 되묘, 연나라의 衛滿이 準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스스로 朝鮮의 왕이 되어 나라가 손자 右渠에까지 전함
- 元朔 원년(BC 128년) 濊君 南閭 등이 右渠를 배반하고 28만구를 이끌고 요동에 귀속함. 무제는 그 지역으로 蒼海郡을 만들었으나 수년후에 폐지함
- 元封 3년(BC 108년)에 조선을 멸망시키고, 그 땅을 나누어, 樂浪, 臨屯, 玄菟, 眞番의 四郡을 둠.
- 濊에는 大君長이 없고, 관직으로 後, 毋君, 三老가 있음
- 濊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(고)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말하는데, 언어와 법령과 풍속이 비슷함
- 동성간에 혼인하지 않으며,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함
- 步戰에 능하며, 樂浪의 檀弓이 산출됨

□「韓」

- 韓에 3종족이 있으니, 馬韓, 辰韓, 弁辰임.
- 馬韓은 서쪽에 위치하며 54國이 있으며, 북쪽은 낙랑, 남쪽은 왜와 접함

-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12國이 있으며, 북쪽은 예맥과 접함
 - 弁辰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12國이 있으며, 남쪽은 왜와 접함.
 - 모두 78개 나라로서, 伯濟가 그중 한 나라임. 큰 나라는 만여호, 작은 나라는 수천家임. 전체 국토는 사방 4천여리나 됨. 모두 옛 辰國임.
 - 마한이 가장 강대하여 辰王으로 삼아, 目支國에 도움함.
- 馬韓사람들은 농사와 양잠을 잘함. 장유의 차례와 남녀의 분별 따위의 예가 없음. 구슬을 귀중히 여겨서 옷에 꿰매어 장식함.
- 사람들이 씩씩하고 용감함. 5월 농사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지냄.
 - 마한의 남쪽 경계는 倭에 가까우므로 文身한 사람들도 있음
- 辰韓 사람들은 秦에서 망명한 사람들이라고 함. 마한이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줌. 그들은 나라(國)을 邦이라 부름. 진 나라 말과 흡사하기 때문에 秦韓이라고 부름
- 鐵이 생산되어, 예, 왜, 마한에서 수입해가며, 모든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함
 - 풍속이 노래하고 춤추며 술마시고 비파뜯기를 좋아함
- 弁辰 사람들은 辰韓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, 성곽과 의복은 같으나 언어와 풍속이 드름
- 변진 사람들은 신체가 장대하고 머리갈이 아름다우며 의복은 깨끗하고 형법은 엄격함.
 - 변진은 倭國과 거리 가깝기 때문에 문신한 사람들이 있음
 - 과거 조선왕 準이 위만에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, 마한을 쳐부수고 스스로 韓王이 됨. 準의 후손이 절멸되자, 마한 사람이 자립하여 辰王이 됨.
 - 건무 20년(서기 44년, 백제 多婁王 17년)에 韓에서 낙랑에 공물을 마침. 한무제는 낙랑군에 소속시키고 철마다 朝謁토록 함.
 - 靈帝말년에 韓과 濊가 강성해져 한의 군현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자, 난리통에 백성들이 韓으로 도망함
- 마한 서쪽 바다 섬위에 州胡國이 위치함.
- 論함
- 기자가 쇠망하는 은의 운수를 피하여 조선 땅에 피난하였으며, 팔조의 법을 시행함. 악하고 나쁜 풍습을 바꾸고 너그럽고 간략한 법을 이루어 수백년동안 행하여 짐
 - 동이 전체가 柔謹으로 風化되어 三方의 풍속과 다르게 됨. 진실로 정교가 창달되면 도의가 있게 마련임
 - 仲尼가 구이에 가서 살려고 한 이유: 공자가 ‘君子가 살고 있으니 어찌 그곳이 더럽겠는가’
 - 그 뒤 중국과 통상하게 되고 上國과 교역하더니, 연나라 위만이 그들의 풍속을 어지럽히자, 그들도 따라서 나빠지게 됨
 - 기자가 법조문을 간략하게 하고 신의로 다스린 따위는 성현의 법을 만든 근본 취지를 얻었다고 하겠음
- 贊함
- 우이(嵎夷)에 살게 되니 곧 양곡(陽谷)이라 함.산과 바다에 사는 것을 아홉 종족으로 구분함.
 - 진 말년에 혼란기 연 나라 사람들이 이땅에 피난하여 중국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東夷의 풍속까지 나빠지게 하더니, 드디어 漢 나라와 통하게 되었음
 - 아득하고 멀리서 통역하자니 복속도 하고 배반도 함